



##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

김세중 연구위원, 김석영 연구위원

-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및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보험 가입 수준이 낮은 상황임
  - 2007년 말 최초로 출시된 반려동물보험은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확대되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협의요율 사용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대부분 철수함
  - 2014년 동물 등록제 의무화로 손해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보험을 재출시하기 시작하였으나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3개사에 불과하며 판매 실적 또한 미미함
-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정보 비대칭성, 표준 진료비 부재, 보험료 산출의 어려움 등임
  - 반려동물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육안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연령판별도 어려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함
  -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반려동물보험에서 부담할 진료비를 추정하기 어려움
  -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진료항목별 진료통계 등을 확보할 수 없어 보험료 산출이 어려우며 신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 사용이 불가능함
-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최초 인계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인계관리 강화,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, 요율제도 개선 등이 고려되어야 함
  -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이 최초 인계되는 시점에 동물 등록, 건강검진, 그리고 보험가입을 하는 인계관리 강화가 고려되어야 함
  - 보험회사가 반려동물 의료비 예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임
  - 한편 보험회사들이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신규진입 시 상품개발이 용이하도록 협의요율 사용을 허용하고 참조요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

## 1. 검토배경



-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수는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는 각각 약 680만 마리, 180만 마리 수준으로 추정됨
  - 2017년 7월 KB경영연구소는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를 전체 가구의 30.9%로 추정하였으며,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중 82.5%가 개를 기르고 있고 16.6%가 고양이를 기르는 것으로 조사됨<sup>1)</sup>
  -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가 약 1,900만 가구(2015년 기준)임을 감안하면 총 반려동물 수는 개와 고양이 각각 약 680만 마리, 180만 마리로 추정됨
  
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구구조 변화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  -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비중은 21.8%로 2010년 17.4%, 2012년 17.9%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
  - 반려동물 증가의 원인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, 다자녀 가구의 감소 등 가구구조 변화가 꼽히고 있으며, 자녀의 정서안정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
  - 개나 고양이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 또한 반려동물 양육 확대에 기여함
  
- 우리나라의 가구당 반려동물 양육 비중은 미국, 영국, 독일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고,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국내총생산(GDP)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우리나라의 가구당 반려동물 양육 비중은 KB경영연구소 추정 30.9%로 미국(65%), 영국(47%), 독일(38%)<sup>2)</sup>보다 낮지만 일본(27%)<sup>3)</sup>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

1) KB경영연구소 보도자료(2017), “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”

2) 농협중앙회(2016), “애완동물 관련 산업 시장동향과 전망”

3) 일반사단법인펫푸드협회(2017), “2016년 전국개고양이사육실태 조사”

- 반려동물 관련 산업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0.11%로 미국(0.34%), 일본(0.28%), 영국(0.15%)보다는 낮으나 독일의 0.12%와는 유사한 수준임<sup>4)</sup>

## ■ 그러나 반려동물 및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보험 가입 수준은 낮은 상황임

-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.1% 수준으로 영국, 독일, 미국의 보험가입률 각각 20%, 15%, 10% 및 일본의 2~3%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<sup>5)</sup>
-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의 전 생애를 함께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적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임
  - 반려동물의 건강문제는 반려동물의 나이가 중년을 넘어가면서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

## 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
## 2.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상품 현황



- 우리나라 최초의 반려동물보험은 2007년 말 H사가 출시한 ‘하이펫 반려건강보험’이었으며, 이후 반려동물보험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었으나 손해율 급증으로 판매가 중지됨
  - ‘하이펫 반려건강보험’ 출시 이후 2008년 1월 26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계는 반려동물보험 수요증가를 예상하고 반려동물보험을 연이어 출시함
  - 반려동물보험은 새로운 상품이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경험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었고 재보험회사로부터 협의요율을 받아 사용하였으나, 협의요율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
  - 손해율이 100%를 상회하자 손해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보험 판매를 중지함

4) 농협중앙회(2016), “애완동물 관련 산업 시장동향과 전망”

5) KB경영연구소(2015), “국내의 반려동물보험 동향과 시사점” 및 독일의 경우 Renate Ohr(2014), “Pet Ownership as Economic Factor”를 참조함

■ 2014년 동물 등록제 의무화로 손해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보험을 재출시하기 시작하였으나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3개사에 불과하며 판매 실적 또한 미미함

- 동물 등록제는 2008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14년부터 의무화로 전환되었으며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를 계기로 반려동물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품 판매를 재개함
- 반려동물보험 보험료는 반려동물의 종류, 연령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연간 약 50~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
- 2017년 3월 기준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총 2,000여 건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 규모가 800만 마리를 넘어서는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임

〈표 1〉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요

구분	A사	B사	C사
가입대상	개	개, 고양이	개
신규 가입나이	생후 3개월 이상 ~ 만 6세 이하	생후 1세 ~ 만 7세	생후 3개월 ~ 만 7세
가입 필요정보	얼굴사진 3매(앞면, 옆면, 전체), 품종, 생년월일 등	반려동물등록증(또는 건강진단서), 얼굴사진 3매	얼굴사진 3매, 품종, 성별, 분양·구입처 등
질병상해 보상	치료비 70% 보장	입원비, 수술비, 통원비 보장	치료비 70% 보장
기타	배상책임보상한도 500만 원 (자기부담금 10만 원)	반려묘 가입 가능	배상책임보상한도 500만 원 (자기부담금 10만 원) 장례금 15만 원

자료: 각 사 홈페이지

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“반려동물 5대 핵심공약”을 발표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

- 문재인 대통령의 “반려동물 5대 핵심공약”은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, 반려견 놀이터 확대,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,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,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(TNR)사업 확대 등임
- 대통령 본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들 반려동물이 유명세를 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- 최근 한 P2P보험업체는 특정 손해보험회사와 제휴하여 반려동물보험 공동구매를 실시 중이며, 출시 2개월 만에 6,000여 명의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잠재성을 보여주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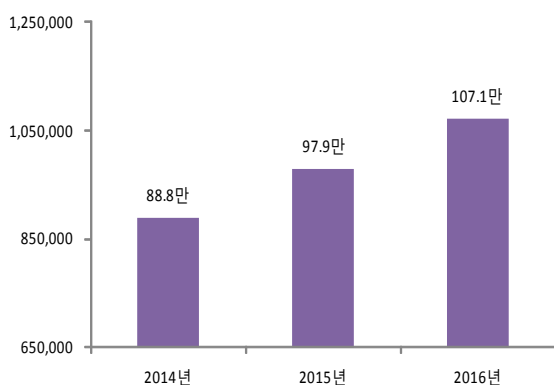
### 3. 반려동물보험의 문제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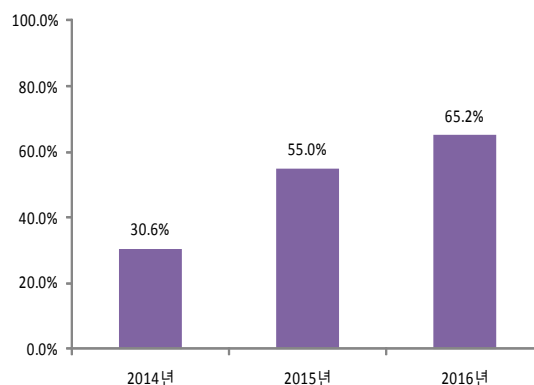
#### 가. 정보의 비대칭성

- 반려동물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육안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연령판별도 어려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함
  -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 시 반려동물의 앞면, 옆면, 전체 사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진만으로 개체를 완벽하게 구별하기 어려움
  - 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보험의 가입 연령을 6세 또는 7세까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보험가입을 위해 고령 반려동물의 나이를 속일 경우 확인이 어려움
-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등록된 동물 수는 약 100만 마리에 불과하며, 이 중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침
  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등록된 동물 수는 총 107만 마리로, 8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반려동물 수에 비해 적은 수준임

〈그림 1〉 연도별 등록 동물 수 추이



〈그림 2〉 연도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신규 등록 비율

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(2017. 6. 12)

- 2016년 신규 등록된 개의 등록형태는 내장형(65.2%), 외장형(27.6%), 인식표(7.2%) 순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선호도가 과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침

-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다른 반려동물이 패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등록동물을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

## 나. 표준 진료비 부재

-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반려동물 보험에서 부담할 진료비를 추정하기가 어려움
  -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진료비 사용을 담합으로 간주함에 따라 동물 의료수가제도가 폐지되었고 현재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음
  - 따라서 동물 진료비의 경우 인체의료에서와 같은 진료항목별 수가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마다 진료비가 상이함
  - 현재 보험회사들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진료비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지급할 진료비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
- 현재 동물 진료의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동물병원이 의료비를 공시하는 공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

## 다. 보험료 산출의 어려움

-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(大數)의 법칙 및 통계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나,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진료항목별 진료통계 등을 확보할 수 없어 보험료 산출이 어려움
  - 보험가입 반려동물의 식별이 곤란하여 보험가입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 빈도 예측이 곤란함(빈도 예측 곤란)
  - 진료항목별 표준수가제, 진료비 고시 진료코드 등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평균진료비 추정이 곤란함(심도 예측 곤란)
- 반려동물보험 판매 경험이 없는 신규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 사용이 불가하기 때

### 문에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음

- 2011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기업성 보험에 한해서만 재보험회사 협의요율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계성 보험인 반려동물보험은 더 이상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없게 됨
- 과거 판매 경험이 없는 신규보험회사의 경우 해외 반려동물보험 데이터를 구매하여 요율을 산출하여야 하나 외국 데이터가 국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

## 4.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



### ■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이 최초 인계되는 시점에 동물등록, 건강검진, 그리고 보험가입을 하는 반려동물 인계관리 강화가 필요함

- 반려동물의 실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이 반려동물센터 등에서 최초 주인에게 인계될 때 동물등록 의무화가 필요함
  - 가정에서 출산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
- 반려동물의 인계시점에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유무를 파악하고 이를 기록함으로써 향후 치료와 보험가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
  - 건강검진을 통하여 반려동물의 인계 후 조기 사망에 대한 소비자 민원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
-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,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
  -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전체보험료의 1/10 미만으로 보험료가 저렴하여 가입에 큰 부담이 없음

### ■ 반려동물에 대한 인계관리 강화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부, 수의사, 보험회사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음

- 반려동물 양육 가정에서는 건강검진을 통해 반려동물의 초기 위험을 파악하고 보험가입으로 향후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며, 등록을 통해 유기 시 쉽게 찾을 수 있게 됨
- 정부는 유기 반려동물의 양육자를 쉽게 파악하여 유기 반려동물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

- 건강검진 강화를 통하여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찰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
  - 반려동물보험 홍보와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보험회사의 영역을 확대할 것이며 이를 통한 경험 통계 확보는 보다 다양한 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임
- 보험회사가 반려동물 의료비 예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임
- 반려동물보험이 실비를 보상하는 현 상황에서 치료비가 불확실할 경우 보험회사는 정확한 보험금 예측과 보험료 산출이 어려움
    - 반려동물보험은 재물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금은 실비로만 지급함
    - 치료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려동물보험은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보상해주고 선천성 질환, 빈발 질환 등을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으며, 보장 범위가 제한적임
  - 동물 의료수가제도가 정착된다면 반려동물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한편 보험회사들이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신규 진입할 경우 상품개발이 용이하도록 협의요율 사용을 허용하고 참조요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
- 보험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신규위험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재보험을 주로 활용하며, 재보험출재 시 재보험회사와의 협의요율을 사용하여 신규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
  - 그러나 현재 단체보험에 한해서만 협의요율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보험 상품 판매 경험이 없는 보험회사는 재보험 출재 후 단체보험 형태로만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
  - 통계집적 기관을 통해 보험업계의 경험 통계를 바탕으로 참조요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출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**kiri**